

간접 요리사(인레이)

김 선 영 /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

인접면 우식이나 이전 2급수복물의 결함으로 인해 재수복시 간접수복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간접 수복재료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온 골드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만, 점차 재료값의 상승과 캐드캠 수복의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드인레이 수복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골드 이외에 복합레진, 세라믹을 이용한 인레이 수복이 그 만큼 늘어나는 임상상황을 고려해서, 재료에 따른 인레이 수복의 여러 임상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와동형성과 간접수복의 접착과정에 대한 이해가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.

학력 및 경력

- *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졸업
- *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석사, 박사 학위
- *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인턴, 레지던트, 전임의
- *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병원 보존과 조교수, 부교수
- *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방문 교수
- * 현, 한국접착치의학회 차기회장
대한치과보존학회 이사
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및 치과병원 교수